



▲ 지난 4월 19일, 우리 대학 스타정원에서 선교봉사처 주관으로 초마셋 교회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다.(사진: 박헌빈 기자)

간호학과,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간호학과는 지난 4월 7일(금) 오후 2시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 받아 사랑과 섬김의 돌봄을 실천하는 전인적(全人的) 간호인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학부모와 친지들도 함께 참여했다. 내빈으로는 김문택 선교봉사처장, 차진아 교무처장, 원종임 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하였고, 67명이 촛불 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를 진행했다.

김미은 학과장은 “예비 간호사로서 출발점에 선 여러분께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한 다짐과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며 참 간호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간호학과 학생들의 앞날에 성공과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선서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는 5월부터 전주 시내 대자인병원과 마음사랑병원, 예수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등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학과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하며 나눔과 섬김의 간호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2023 JJ리그 개막

지난 4월 10일, 우리 대학 A/B 구장에서는 제9대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PAGE'가 주최하고 'JJ리그 위원회(JJCL)'가 주관하는 JJ리그 개막전이 열렸다.

경기지도학과(축구전공) 동아리인 JJ리그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모든 축구 동아리를 대상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동아리는 전국 대학교 최초로 학교 내의 동아리를 한데 모아 시즌제로 JJ리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JJ리그는 작년부터 재개됐다. 2022 JJ리그에는 총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1학기를 전반기, 2학기를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했다. 2023 JJ리그에는 작년보다 1팀 더 많은 13개 팀이 참가했으며, 전반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경기를 진행한다.

개막전은 지난 4월 10일(월) 오후 6시 30분, A구장에서 '신드롬'과 '유신', B구장에서는 '일레븐'과 'GBW'의 경기가 진행됐다. 이어서 오후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그리고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연달아 경기를 진행했으며, 개막 당일 경기들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JJ리그는 시즌이 종료되면 즉시 플레이오프 경기를 진행하며, 단체상으로는 우승팀, 준우승팀, 플레이오프 1위 팀과 페어플레이 팀 시상이 있고, 개인상으로는 리그 MVP와 득점왕, 영플레이어상을 시상하여 리그의 재미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2023-1학기 신문방송국 사령

■교육방송국 임명
[제작부]
박수빈(가정교육 21)

[기획부]
박수현(일본어문 23)
최윤주(중등특수교육 22)

[편집부]
고다희(영어영문 23)

■대학신문사 임명
[취재부]
김하람(한국어문 20)
전지은(한국어문 23)

위 사람을 4월 12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학문의 경계를 허물다” 연계·융합·마이크로 전공

우리 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에서는 시대 수요에 맞춘 유연화된 학사 제도인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수퍼스타칼리지를 통해 기존 학과 전공과 더불어 다양한 융합 전공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연계·융합·마이크로 전공의 신청 자격은 (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게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매 학기 1~2주, 12~13주 차(보강주간 제외)이다. 신청 절차는 inSTAR에서 『학사관리』 → 『연계/융합 전공 신청』 → 『다 전공 구분』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우리 대학에서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이수 및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각 전공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융합 전공

융합 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이다.

융합전공의 이수 방법은 복수·부전공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융합 전공은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별도의 졸업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단, 융합 전공 교육과정의 이수 구분은 융합 전공 복수·부전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 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퍼스타칼리지에는 총 19개의 융합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 연계 전공

연계 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이다.

연계 전공에서는 이수한 과목이 타 연계·융합 전공 및 일반학과 복수·부전공의 이수 과목이 중복한 경우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연계 전공은 참여학과 학생만 선택할 수 있다. 참여학과로는 △융합학부 △한국어문학과 △회계 세무학과 △가정교육과 △바이오 기능성식품 학과 △일본 언어 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총 9개의 학과이다.

또한,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자기 설계 전공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주전공에 구애 없이 전공명과 진로 분야를 기획하고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 15개 이상 편성하면 된다.

■ 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은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외에 타 전공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하면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전공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1회만 중복 인정한다. 단, 다 전공 간에는 중복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마이크로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다 하더라도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마이크로전공을 2개 이상 이수할 경우, 주전공의 심화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수퍼스타칼리지에는 총 22개의 마이크로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재학생을 위한 글쓰기 클리닉

지난 4월 17일, 수퍼스타칼리지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 ‘글쓰기 클리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쓰기 클리닉’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필요한 문서작성능력을 함양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원고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수필, 소설, 시나리오 등 장르 제한 없이 선택하여 작성하고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배정된 교수와 1대1 상담을

통해 원고 클리닉 지도가 이루어진다. 상담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1차 클리닉은 필수 참여, 2차 클리닉은 선택 참여로 총 2번의 클리닉이 진행된다.

글과 친하지 않거나 본인 글에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클리닉을 통해 누구나 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스타 비교과 프로그램맵 또는 수퍼스타칼리지 의사소통교육과(220-2603)에 문의하면 된다.

| 김하람 기자(202015030@jj.ac.kr)

제15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이번 달 19일까지, 우리 대학 수퍼스타칼리지에서는 제15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작품을 접수하고 있다. 이 대회는 본교 재학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과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해 주최됐으며, 학부 재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주제는 <내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기억>, <우리는 왜 여행에서 설레임을 느끼나?>, <생성형 AI(ChatGPT)는 지식 전달과 학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MBTI는 신뢰할 수 있는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대회는 1차 예선과 2차 본선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예선 접수 시 주제 선정 이외의 규정이 없어 장르, 내용, 분량에 관여 받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고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1차 참여 방식은 19일까지 전주대학교 공식 포털 사이트인 온스타(http://onstar.jj.ac.kr)에서 참여 접수 후, 작품 원고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메일(nglee101@gmail.com) 또는 우편으로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응모 메일의 경우 접수와 마찬가지로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반면, 우편은 18일 이전의 소인이 찍혔을 경우 인정한다.

본선 진출자들은 1차 예선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는다. 구술 심사가 2차 본선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진출자와 심사위원 간에 면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최종적으로 수상자는 1차 예선 접수와 구술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31일에 공개된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총 8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1명)은 3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20만 원, 우수상(5명)은 각 10만 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은 StarT Progr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 점수 10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천 항목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 컵 반환,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여사 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여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하면 된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매월 말에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참여사는 CU, GS25 등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부터 스타벅스, 메가커피 등 커피숍, 마트, 배달 업체, 차량 관련 업체까지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참여사에 따라 실천 항목이 나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 후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실천지원금 적립 조건이 변경되었다. 작년까지는 가입만 하면 실천지원금 5,000원이 지급되었다. 변경된 지금은 실천 항목 이행 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적립된다.

적립 포인트를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된다. 신규 가입 회원은 새싹, 적립 포인트 20,000원 이상은 나무, 40,000원 이상은 숲, 70,000원은 지구다. 등급별 혜택은 준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통학버스 주차장 부근 펜스 훼손, 안전 문제 제기돼

우리 대학 통학버스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펜스가 훼손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학버스 주차장과 원룸촌의 경계를 나눈 펜스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훼손된 펜스는 기둥에 매달린 채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다. 학교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건물의 주차 구역과도 밀접해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펜스가 훼손된 이후에는 통학버스 주차장이 원룸촌에 거주하는 학우들의 주요 통학로가 되었다. 기존 통학로인 속거마을 도로는 스타타워를 돌아가야 했다. 통학버스 주차장을 통하면 통학 시간을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훼손된 펜스로 가려면 통학버스 주차장을 통하거나 예술관-천장관 이동을 통해야 한다. 통학버스 주차장은 대형버스가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곳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버스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기에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예술관-천장관 이동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3시간 정도 해당 지점을 관찰했을 때 대부분의 학우가 통학버스 주차장을 통해 훼손된 펜

스로 접근했다.

4월 중순 마을 주민의 민원 제기로 해당 펜스는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한 임시 수리가 되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펜스를 넘어 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펜스 높이는 160cm 정도지만 통학버스 주차장과 원룸촌 주차장과의 높이 차이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훼손된 펜스를 줄로 묶어 통로가 개방된 상황이다.

펜스를 누가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학교는 ‘일부 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펜스는 강선(鋼線)으로 제작되어 시중의 절단기로 쉽게 절단하기 어렵다. 또한 절단된 강선의 면이 매우 깨끗해 ‘전동 그라인더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원룸촌 건물주 중 일부가 훼손된 펜스를 상시 개방해 ‘사실상 공식 통학로’로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원룸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받고 있으며, 조만간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왼쪽) 훼손된 펜스가 방치된 모습이다.

▲(오른쪽) 원룸촌에 빠르게 가기 위해 펜스를 무단으로 넘고 있는 모습이다.

강릉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선한 움직임 이어져

지난 4월 11일 강릉시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 120여 곳이 불에 탔고 피해를 본 주택은 154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실된 규모는 축구장 53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태풍급 바람이 산불 규모를 커지게 한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순간풍속 30M의 강풍이 산불 진화에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카카오는 피해 복구 성금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또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해피빈을 모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8곳은 3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하였고, 롯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SK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SK텔레콤, SK브

로드밴드, SK오앤에스는 이동식 애플 서버 서비스 버스를 보내 통신 지원에 나섰다. 또한 대피 장소인 사천중학교 등지에 IPTV와 와이파이 라우터 및 휴대전화 충전 부스 설치와 함께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산불 지역의 통신 시설물 점검 및 긴급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20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같은 LG 계열사들 역시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달라진 보강 주간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챗GPT 열풍, 'AI 면접 코칭' 예상 질문부터 피드백까지

챗GPT가 등장하고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면접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준비에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챗GPT란 오픈 에이아이(OpenAI)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이다.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다. 인사 기술 중심 기업인 원티드 랩에서는 챗GPT 핵심 기술인 GPT-3를 활용해 채용 면접 답변에 대해 분석해 주는 '인공지능 면접 코칭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가 채용공고 링크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기업의 특성, 직무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예상 질

문을 제시한다. 이용자가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면 인공지능이 답변내용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부분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면접 스테디에서 준비하는 모의 면접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커리어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도 챗GPT 기반의 'AI 면접 코칭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연어 처리(NLP) 기술 기반의 'AI 자소서 코칭'에 챗GPT 기술을 결합해 정확한 면접 질문을 제공한다. 여기서 자연어(NLP)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 생성,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AI)의 한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 개인에 특화된 구체적 질문을 뽑아준다. 또한,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도우려고 자기소개서 내 근거 문장도 표시해 준다. 한편, 기업에서는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모의 면접 답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현행법상 타인이 작

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제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챗 GPT의 경우에는 처벌 여부 판단이 모호하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와 관계없이 이전에 진행하던 채용 과정에서 벗어나 실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JJ University> 이달의 헤드라인

- 4월 7일, 간호학과 제13대 나이팅게일 선서식 진행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할 것'
- 4월 13일, 전주대 주관으로 글로벌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포럼 개최
- 4월 18일, 과학교육과 특수교육 중교 과학과 국정교과서 편찬기관으로 선정
- 4월 19일~21일, 총학생회 야간택시 운행(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 경기지도학과, 제2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여성대학부 종합 3위 입상
- 대학축구 U리그, 전주대vs청주대(3-0), 전주대vs동국대(4-1) 4승 무패로 현재 조1위 독주 중
- 링크3.0사업단,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 오픈'
- 산학협력단장 김상진 교수 '미래 깨끗한 환경은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사소한 노력으로부터 만들어질 것'
- 5월 6일~7일(예선), 12일~13일(결선), 전북권 동아리 협의체 E-스포츠 대회 진행 예정
- 5월 16일, 우리 대학에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진행 예정

| | |
|-----|---|
| 신문을 | |
| 읽 | 1 |
| 이 | 2 |
| 면 | 3 |
| 답 | 4 |
| 보 | 5 |
| 여 | 6 |
| 요 | 7 |

1. 코로나19로 잠시 ○○되었던 JJ리그는 작년 부터 재개됐다.
2. ○○ ○○은 매 학기 1~2주, 12~13주 차 (보강주간 제외)이다.
3. 참가자는 배정된 교수와 1대1 상담을 통해 ○○ ○○ 지도가 이루어진다.
4. 구술 심사가 2차 본선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진출자와 ○○○○ 간에 면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5. 챗 GPT란 오픈 에이아이(OpenAI)에서 개발한 ○○ ○○ 인공지능 챗봇이다.
6.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 위해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 ○○○○○ 선서식에서 한 다짐과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며 참 간호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 928호 정답: 신입생활영해요

[928호 정답자]
 -IT금융학과 김건희 -IT금융학과 이윤진
 -행정학과 김지혜 -영어영문학과 박예인
 -회계세무학과 최지수

알림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4월 12일(수)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독자 이벤트


5월 가정의 달 맞이 나만의 이야기 소개하기

가족, 친구들, 교수님과의 에피소드 등 나만 알고있던 가까운 각종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떤 썰을 얘기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5월 가정의달-스승의날 맞이 집과 학교에서 생긴 화목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올아빠 강아지랑 달리기 시합했는데 아버지가 저서 3일동안 강아지 산책 안나갈 ㅋㅋ



전주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원, 직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작성요령과 참고사항

| 내용 | 분량 | 작성 |
|---|---|--|
| <p>즐거웠고 행복했던 이야기라면 뭐든 OK!</p> <p>즐겁게 기억했던 추억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내용을 보내주세요!</p> | <p>짧아도 OK! 길어도 OK!</p> <p>말론는 술술 설명하는데 글로 적으면 분량을 주체하지 못할 수 있죠..</p> <p>최소 200자 이상, 최대 1,000자 이하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p> | <p>빠보고, 안되면 일단 보내주세요!</p> <p>"그래도 신문에 실리는건데 잘 쓰이지 않을까?"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다들어서 실을 예정입니다!</p> |
| <p>*지면 상황에 따라 내용 압축과 부가설명 등 일부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p> | <p>*지면에 실린 에피소드는 추후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p> | |

(접수된 에피소드는 전주대신문 제930호 지면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에피소드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news@jj.ac.kr (이름, 학번, 학과, 연락처, 에피소드 내용)
*추후 연락 통해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작성 필요

구글 폼 접수
<https://forms.gle/Y6mga3LGJMkQ3kRo9>

방문 접수
에피소드를 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신문사에 방문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1. 063-220-2442 또는 063-220-2044 전화 후 방문
2. 인스타그램 @jnbs_news로 DM 후 방문도 가능)




전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기자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063-220-2442
063-220-2044

jnbs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어떤 이 영화도 평여?



제목: 찬란한 나의 복수
감독: 임성운
장르: 드라마
개봉: 2023.03.29
러닝타임: 90분
출연: 허준석, 이영석, 남보라, 오탈경, 신원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을 똑 닮은 아들 동빈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던 형사 류이재. 평소와 같이 마약범 검거 작전을 수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동빈이가 죽었어"

충격적인 아내의 한마디.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로 인해, 류이재는 사랑하는 아들 동빈을 잃게 됩니다. 형사인 류이재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애를 쓰지만, 현장과 가까운 CCTV는 고장이 나 있었고 어떠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삶의 전부인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었던 류이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시간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 또한 류이재를 떠나고,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렇게 류이재는 혼자 남아 하루하루를 술로 견뎌냅니다. 그러다 류이재는 남원으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줄 여성 엄소현을 만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류이재가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사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사람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싱장에서 만나게 된 노인 임학춘은 류이재의 아들 동빈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임학춘은 충격적이게도 동빈을 죽인 당사자였습니다. 류이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난 뺑소니 사고, 한 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목격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류이재는 자신이 형사라서 어디선가 원한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받은 것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임학춘은 류이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빈이는 운이 없었고, 난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과연 이 사건은 임학춘의 말대로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류이재의 예상대로 누군가의 사주로 인한 사건일까요? 류이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복수를 임학춘에게 선사해 주길래 이 영화의 제목이 <찬란한 나의 복수>일까요? 류이재의 복수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기사 | 조하원 기자 (hawon2004@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 (danbee425@jj.ac.kr)

미래 환경을 위한 사소한 노력 산학협력단장 김상진 교수



우리 대학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모델링'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권에서는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와 더불어 3년째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순한 신건축이나 재건축의 의미가 아니다.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림조성 및 식재 사용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후와 환경 변화가 예민한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학생들은 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 산학협력단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본관 산학협력단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로 산학협력단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소개, 사업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헌신한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편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끝까지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후손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상진 교수가 교내 구성원에게 전한 포부였다. 특히 '건강한 미래는 사소한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Q.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현재는 산학협력단장이면서 공동기기센터장, 전주대학교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LINC3.0 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건축환경설비 및 에너지로서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사는 기계, 박사는 건축이며 하는 일은 외부 기상 및 일기예보와 같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2001년에 부임해서 2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산학협력단이란 어떤 것이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A.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으로서 산학연관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취득, 보호, 기술이전과 창업보육을 활성화 하며, 협력연구소를 육성, 발전 시키는 등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각종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 및 용역사업을 행하는 곳입니다. 물론 주체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내의 교수님과 연구원 및 학생들입니다. 대표사업은 국책 연구사업인 BK사업, 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탄소 관련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큰 사업비를 가진 외부 연구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사업이 산학협력단의대표사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Q. 산학협력단의 목표(비전) 및 추진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 양성,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 지식 재산의 산업화를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으로 교육재정 확충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인재양성을 향해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산학 혁신의 허브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연구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것이 산학협력단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연구확대를 통하여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내 연구역량을 키워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기술개발은 지역 및 국가의 역량을 높이며 양질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역량도 강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 대학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더욱 발전할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Q. 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을 더욱 편리한 구조와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건축물에서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내의 에너지 사용량의 약 25% 이상을 건축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을 다시 이야기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Q. 우리 대학이나 대학 주변에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있나요?

A. 현재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보건소, 국공립어린이집, 병원 중 150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30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의 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 이자 지원사업을 이용해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돕고 있습니다.

Q.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 그린뉴딜의 10대 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을 이룩하여 지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지금과 같이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지속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제로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이들 발전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므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소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사용량을 줄이거나 적게 쓰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단순히 건축물의 단열 등을 잘하는 방법과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더 좋다고 판단되고 이마저도 부족

하다면 그때는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방법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중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필수요소인 단열 등을 더 신경 쓰도록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의 자동차 등 수송 수단은 10년 정도 쓰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송 수단으로 교체가 되겠지만 집은 한 번 지어지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므로 그린리모델링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 대학교는 에너지 과소비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고,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실제 실무교육과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독일, 일본 등 에너지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높은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에너지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등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해서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도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러한 일 중에 하나로 우리 학생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은 모두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에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잠자리의 하나가 아닌 필터도 되고 사람이 지속해 거주할 공간이므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쳐서 유용하게 쓰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진행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하늘 기자(neul0603@jj.ac.kr)
촬영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불길하면서도 매혹적인 세계'에 대한 츰스키의 불안에 답하다.



츰스키 선생님. 선생님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ChatGPT라는 그릇된 약속"(The False Promise of ChatGPT)이란 제목의 에세이를 잘 읽었습니다. ChatGPT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펼친 일련의 논증 과정은 왜 선생님을 현대 언어학의 아버

지로 부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 과정과 머신 러닝의 학습 메커니즘 비교를 통해

인간 지능의 창조성, 정교성,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를 인공지능은 결코 모방할 수 없음

을 지적한 부분은 인지과학의 선구자다운 통찰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 습득 능력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생득적(生得的) 능력이 없는 ChatGPT같은 생성형 AI가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칫 선생님이 지난 세기에 쌓아온 <변형생성문법>의 금자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 글을 읽으며 플라톤의 '문자 비판'을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운 연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과 이해는 글로 써진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자 혹은 문자로 된 텍스트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기껏해야 무언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의 기억을 불러낼 수 있게 해 주는 상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플라톤의 진술을 문자와 글쓰기에 대한 비판이라 이해하지만, 기실 그 맥락은 모호합니다. 플라톤이 구술문화를 대변하는 음유시인들에 대해서도 이데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질타한 것을 염두에 두어보면 플라톤은 글이나 말 모두 불변하고 단순한 실재인 이데아에 대한 앎을 전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 하에,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문화의 지각 변동에 대한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적 통찰을 보인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결국 말도 문자도 모두 수단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체'가 '이데아'를 상기(想起)하는 것입니다. 저는 플라톤의 문자 비판이 "문자는 단지 도구"라는 불변의 전제 위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자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의 영향과 변화를 인류사에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도구를 넘어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사고를 재구조화하게 된 것은 도구인 문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 인간의 부단한 학습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ChatGPT 역시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언어인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래밍된 기억 보조장치이며 검색엔진입니다. 기존의 검색엔진이 '쓰고' '읽는' 문자 중

심 환경이었다면 ChatGPT는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 중심으로 UI와 UX가 변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글을 읽다보면 ChatGPT를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교해 보이는 사고와 언어에도 지능이 없는 데서 오는 도덕적 무관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ChatGPT는 표절과 무관심, 무책임이라는 악의 평범함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초자동 완성으로 문헌의 표준 주장을 요약하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지능 부족을 호소하며, 궁극적으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호를 제공하여 책임을 제작자에게 전가합니다.

'도덕적 무관심', '악의 평범함', '책임 전가'는 모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반응입니다. 도구인 ChatGPT가 그걸 흉내냈다면 그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플라톤이 문자와 대비해 "살아 있는 말은 그렇지 않아서, 그것은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맞춰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릴 줄 안다"라고 말한 것은 사용자인 인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ChatGPT에는 가장 중요한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ChatGPT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놀라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움직여 오던 기술이 풍부한 자본과 맞물려 비등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인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수용할 준비가 된 것이고 그 원년이 2023년인 것뿐입니다. 도구는 사용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며, "어느 날 문득" 우리 옆에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 도구적 영감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도구적 영감이야말로 기술의 '생성형 능력'을 압도하는 인간의 '생득적 능력'입니다.

선생님 말대로 ChatGPT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메타데이터와 질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ChatGPT가 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ChatGPT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술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이며 '악의 평범함'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답변의 신뢰성 판단은 사용자인 인간의 몫이지 도구인 ChatGPT에게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 활동이니 ChatGPT가 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ChatGPT의 어설픈 흉내내기에 불쾌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로봇에 적용되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인공지능에까지 적용해 보면 인간과 닮으면 닮을수록 불쾌함을 느껴야 하지만 (선생님의 지적대로라면) 실제로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조성과 비판적 사고를 결코 모방할 수 없으니 불쾌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플라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플라톤의 고뇌는 문자로 된 텍스트가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현실적 불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에 대해 스승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리카이온에 자신의 학당을 설립하고 당대 최고의 혁신적 기술인 문자를 적극 수용하여 모여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의를 집필합니다. 결국 지식과 배움은 이해와 기억의 문제이며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말보다 문자가 더 유용함을 통찰하고 글쓰기로 적극 실천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연에서 인공자연으로, 문자문화에서 구술문화로 변화하는 기술 전개의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비판적 입장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향적 태도도 다 필요합니다. 기술 전개에 대한 해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의 변증법적 사고 체계가 완성되는 부단한 과정이며, 인류지성사는 기술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달리기는 말(馬)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경쟁하는 대신 말에 올라타고 길들이는 방식을 택하였고 결국 자동차까지 발명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잘하는 것은 연산(演算)이고, 인간은 연상(聯想)을 잘하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처럼 인공자연 안에서 주체와 도구가 참으로 절묘한 황금분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핏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길한 세계'이지만, 막상 올라 타보면 더 넓고 깊은 '매혹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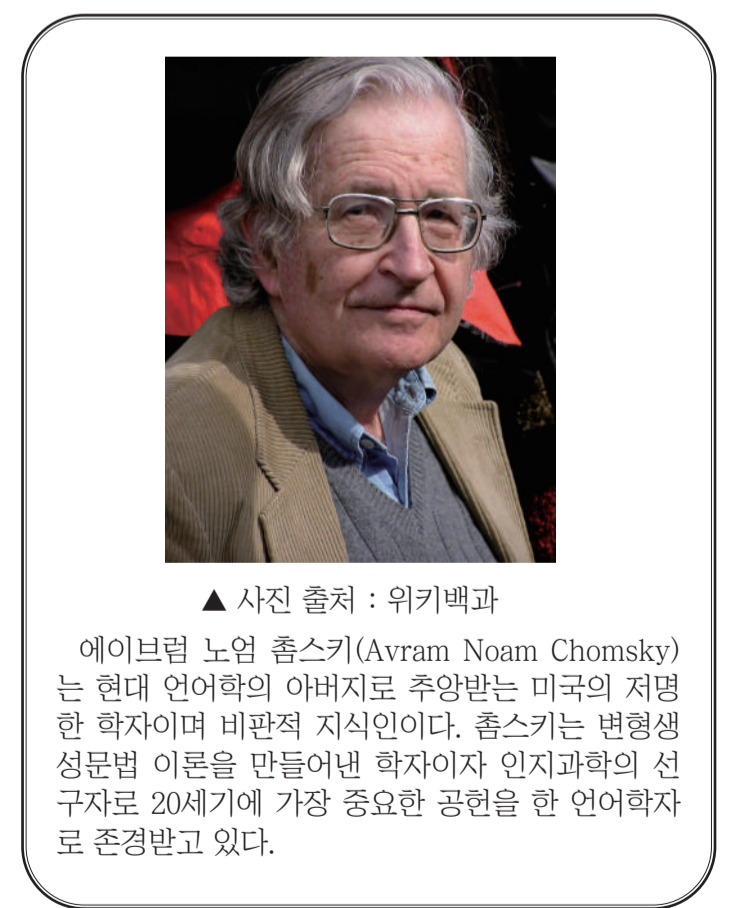
우리는 선생님의 표현대로

지금 위대한 위험과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언어를 통해 유한한 수단을 무한히 사용하여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이디어와 이론을 창조해야 할 책임은

도구가 아니라 도구의 사용자인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에게서 도구적 영감을 받은 도전적인 학자들에 의해 <변형생성문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지과학 이론이 창발(創發)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츰스키의 에세이 「The False Promise of ChatGPT」의 본문 인용은 사각형 상자로 표시하였음





‘로봇 저널리즘’이란 인간 기사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자료 분석 등 기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 왔으나 2010년대가 지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존 언론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던 2022년 ‘초거대 AI’, 챗GPT가 등장했다.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심지어 미국에선 의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웬만한 직종 모두 챗GPT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꼽히던 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 신문사의 기사를 사용해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A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개업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04년 개업해 약(藥)고추장을 판매하며 동아리에서부터 기업까지 성공 신화를 보여준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이하 ‘궁중약고추장’)이 지난 2월 28일부로 사업을 종료했다.

궁중약고추장은 지난 1월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 소식을 알렸다. 교내 판매에 의존도가 높던 궁중약고추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입학자원 감소,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제품과 BI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제조 비용 증가와 학교의 지속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궁중약고추장은 2016년 운영수익 3억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점차 수익이 줄어들며 2021년에는 1억 원대로 하락했다. 줄어드는 수익과 반대로 운영비용은 동일하게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궁중약고추장 폐업 소식에 구성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재학 중인 한 학우는 “입시박람회에서 학교 홍보 물품으로 궁중약고추장에서 제작한 튜브형 고추장을 받아 본 적이 있다.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홍보 물품이라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런데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편, 궁중약고추장은 학생들이 동아리로 시작해 2004년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사업단을 만들며 역사를 시작했다. IFF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과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대한민국 식품 환경 발명 대상 농수산물유통공사 최우수상, 학교기업지원사업 연차 평가 우수기업 선정 등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궁중약고추장에서 생산한 제품 일부는 입시박람회 등에서 학교 홍보 물품으로 이용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A [전주대, 2023년 중등교사 임용고시 62명 합격]

우리 대학(총장 박진배)은 작년 11월에 진행했던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에서 108명 합격에 이어, 2023년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에서 합격자 62명(가정교육과 12명, 과학교육과 7명, 국어교육과 10명, 수학교육과 12명, 영어교육과 5명, 중등특수교육과 6명, 한문교육과 3명, 기타교직복수전공자 7명)을 배출했다.

2022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북지역 경쟁률은 7.32였다. 한편, 2023년 경쟁률은 9.47로 2,813명이 지원하여 297명이 합격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는 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교직 과목 이수한 일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또는 부전공 이상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사범대학(학장 박기범)은 교육부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선정(호남권 유일 A등급) 기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236명의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자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11명이 합격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 경진대회, 학과 홍보 UCC 공모전, 사제동행 특강, 선배 교사 특강, 소명관(임용고시원) 집중 관리, 교육 공무원 준비반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개업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04년에 개업하여 약초 고추장을 판매하는 학교기업인 ‘궁중야채고추장’ (이하 ‘궁중고추장’)은 2월 28일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궁중고추장은 1월에 대학 웹사이트에서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회사는 대학 내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지원자 수의 감소, 등록금 동결로 인한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제품 개발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증가하는 생산비용과 대학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 어려워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매출 3억 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뤄냈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운영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회사 구성원들은 폐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학생은 대학 박람회에서 궁중고추장의 튜브형 고추장을 받은 기억이 남아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회사의 폐업 소식은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궁중고추장은 학생들이 클럽을 시작하고 2004년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야채고추장’ 사업부를 창립하여 시작되었다. 회사는 IFFE(전주국제발효식품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대학 기업 지원사업 선정, 국립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식품환경발명대상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궁중고추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는 대학 홍보용 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B [전주대, 2023년 중등교사 임용고시 62명 합격]

우리 대학은 작년 11월에 열린 중등교사 채용 1차 시험에서 108명 합격에 이어, 올해 2023년 2차 시험에서도 62명의 합격자(가정교육과 12명, 과학교육과 7명, 국어교육과 10명, 수학교육과 12명, 영어교육과 5명, 중등특수교육과 6명, 한문교육과 3명, 기타교직복수전공자 7명)를 배출했다.

전북지역에서 2022년 중등교사 채용시험 경쟁률은 7.32였다. 반면, 2023년에는 경쟁률이 9.47로 상승하여, 총 2,813명의 지원자 중 297명이 합격했다.

중등교사 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교직과목 이수한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또는 부전공 이상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사범대학(학장 박기범)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5주기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호남권 유일 A등급)된 기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36명의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11명이 합격했다.

우리 대학은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예비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 경진대회, 학과 홍보 UCC 공모전, 사제동행 특강, 선배 교사 특강, 소명관(임용고시원) 집중 관리, 교육 공무원 준비반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두 개의 기사 중 인간이 작성한 기사는 무엇일까?

AI는 단순한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더욱더 전문성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 저널리즘이 언론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K-웹툰과 미디어의 만남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에는 OTT 서비스를 통해 웹툰 원작 콘텐츠가 제작되고 성공하면서 그 관심이 다시 웹툰 원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웹툰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웹툰 원작 드라마



▶ 1. 사내맞선
‘사내맞선’은 한국 멜로드라마 열풍을 잇는 드라마로, 얼굴 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킬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다. 여주인공 ‘신하리’역은 김세정이, 남주인공 ‘강태무’역은 안효섭이 맡아 연기했다. 이 드라마의 큰 장점은 전개가 빠르다는 것이다. 웹툰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 빠른 전개로 극의 흥미를 더했다. ‘사내맞선’은 넷플릭스 시리즈가 아닌 동시 방영 드라마이기 때문에 해외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 2. 알고 있지만
송강과 한소희의 만남 그 자체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알고 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의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웹툰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하였다.



▶ 3. 유미의 세포들
2015년 연재 후 완결되기까지 줄곧 사랑받은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팬들은 캐스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드라마는 세포 자극 로맨스로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제작 기법을 사용하여 원작의 스토리와 각종 요소를 거의 그대로 구현해 내었다. 그 인기로 시즌 2까지 제작되었다.



▶ 4. 모범택시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으로, 화려한 캐스팅과 시원하고 속도감 있는 연출, 통쾌한 액션 등으로 호평받은 드라마다. 호평 속에서 시즌 2까지 편성되어 지난 4월에 막을 내렸다.



▶ 5. 어쩌다 발견한 하루
2019년 방송된 드라마로, 여고생 은단오가 자신이 만화속 엑스트라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고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사랑하게 되는 로맨스 드라마다. 원작의 제목은 《어쩌다 발견한 7월》이다. 은단오 역은 김혜윤, 하루 역은 로운, 배경 역은 이재욱이 맡으면서 훈훈한 삼각관계를 보였다.



▶ 6.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은 2014년부터 연재되어 계속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종알람’ 앱이 개발된 세상에서 세 남녀의 로맨스를 그린다. 웹툰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되었다. 극중 황선오 역의 송강, 김조조 역의 김소현, 이해영 역의 정가람은 외모적으로 높은 싱크로율과 풍부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 7. 오늘도 사랑스럽개
‘오늘도 사랑스럽개’는 키스하면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여자와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현재 남자주인공 역은 차은우, 여자주인공 역은 박규영, 서브 남자주인공 역은 이현우로 캐스팅이 완료되어 촬영에 들어간 상태이다. 아직 방영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 8. 이두나!
넷플릭스 드라마로 방영 확정된 웹드라마로, 평범한 대학생 원준이 세여하우스에서 화려한 K-POP 아이돌 시절을 뒤로 하고 은퇴한 두나를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드라마다. ‘이두나!’ 촬영장 모습이 공개되며 팬들은 웹툰 속 여주인공이 나왔다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드라마는 2023년 4분기에 방영될 예정이다.

웹툰 원작 영화



▶ 1.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년에 상영된 영화로,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은 조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동네 바보, 가수 지망생, 고등학생으로 달동네 사람들과 지내며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수현, 박기웅, 이현우, 손현주가 주연을 맡아 호평을 얻었다.



▶ 2. 여중생A
게임에 빠져 사는 중학생 장미래가 조금씩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에선 원작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행 자체가 원작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 주연 배우로 김환희와 김준면이 출연했다.



▶ 3. 신과 함께
큰 인기를 얻은 웹툰 ‘신과 함께’는 판타지·드라마 웹툰으로, 한국의 전통 신들과 주인공들의 관계를 통해 보는 세상 풍자와 신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다. 차태현,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가 주연을 맡으며 탄탄한 연기로 시즌1 ‘신과 함께-죄와 벌’에 이어 시즌2 ‘신과 함께-인과 연’까지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 4. 해치지않아
폐업 위기의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동물 탈을 쓰고 모험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의 기상천외한 ‘동물 없는 동물원’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작가의 후속작이며, 연재 당시 기발하고 신선한 설정과 예측불허 스토리로 호평받았다. 영화 ‘해치지않아’라는 재미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각색을 거쳤다. 동물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열연 덕에 실감 났으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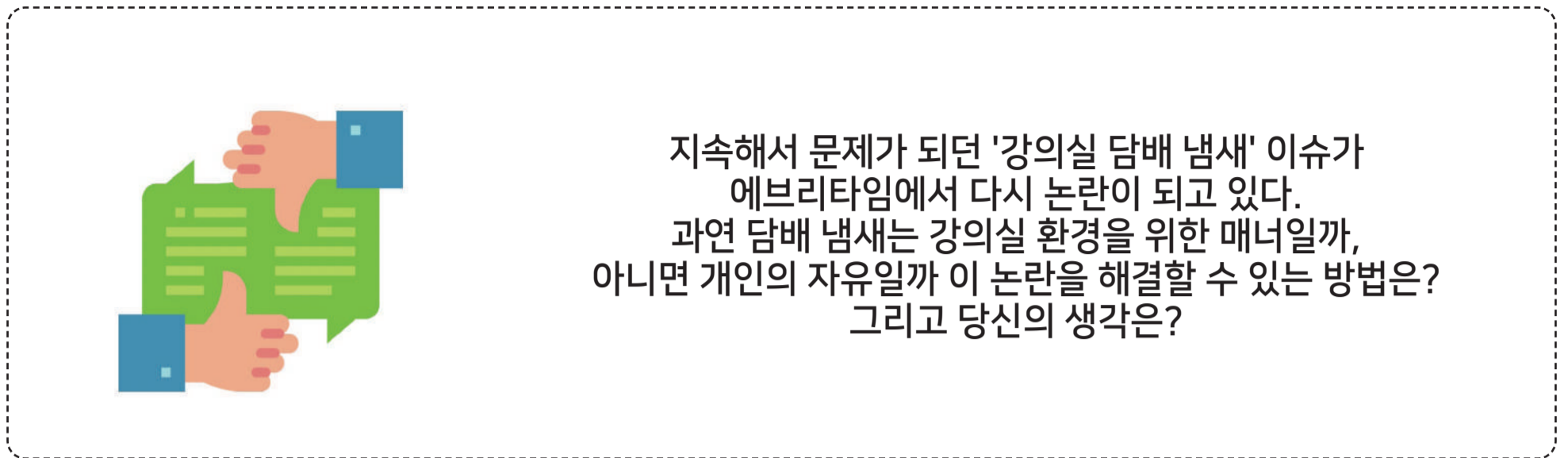
▶ 5. 강철비
2017년에 개봉한 액션 첩보 영화로, 북한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북한의 권력 1호와 정에 요원 엄철우가 남한으로 피신하면서 벌어지는 일촉즉발 한반도 최대 위기를 그린 영화이다. 원작은 감독 본인이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웹툰 《스틸레인》이다. 정우성, 광도원, 이의성, 김경영이 주연을 맡아 연기했다. 전문가 평균 7.19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6. 내부자들
웹툰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웹툰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를 다루는 느와르 영화다. 뛰어난 연기와 현실감 있는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주연 배우로는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이 맡아 출연했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강의실 환경을 위한 매너 vs 흡연도 개인 자유



지속해서 문제가 되던 '강의실 담배 냄새' 이슈가 에브리타임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담배 냄새는 강의실 환경을 위한 매너일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일까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매너가 쾌적한 강의실을 만든다



지난 4월 에브리타임에 “저 진짜 부탁인데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담배 냄새 좀 빼고 들어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담배 피우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강의실이니만큼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담배 냄새를 빼고 들어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많은 공감을 얻어 핫게시판에 게시되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다. 매너는 그 사람의 품격이나 성격, 태도 등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매너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서로 배려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매너로 인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매너는 사용한 강의실 정리 정돈하고 나가기, 보일러 전원 끄기,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매너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완벽히 지키지 않고 있다.

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나만 괜찮으면 됐지’라는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흡연자를 고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흡연 구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흡연자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흡연하고 냄새가 몸에 밴 채 강의실에 들어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흡연자들은 비흡연자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 냄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담배 냄새를 풍기면 냄새를 빼고 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학우가 담배 냄새를 풍긴다면 괜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한마디도 못 한다. 약 1시간 동안 담배 냄새가 나는 밀폐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제대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흡연이 안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경우 더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는 못할 것이다. 담배 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 다른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다. 두 가지 연기 중 독성 화학 물질의 농도는 생담배 연기가 2~3배 정도 더 높다. 또한, 생담배 연기는 입자의 크기도 작아 폐의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생담배 연기의 독성을 짐작할 만하다. 간접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흡연자보다 간접흡연자들이 더 위험한 것이다.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 냄새를 빼고 들어오는 것이 공공이 지켜야 할 질서는 아니지만, 이는 매너 없어 겪게 되는 불편함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흡연이 자신의 권리라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참게 하는 것 자체도 매너라고 볼 수 없다. 비흡연자 입장에서 ‘나만 괜찮으면 됐지’라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흡연자들의 몸에 밴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도 없고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는 비흡연자들의 암묵적인 배려가 있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국 매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매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본인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질서를 넘어서 개념이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심이 보이는 행동이 매너다. 그렇기에 매너 있는 행동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대우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본인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자신부터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흡연자는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

비흡연자는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으로 불만을 느끼고, 흡연자는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다. 흡연자들은 지정된 흡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충돌은 오래전부터 논쟁거리가 됐다. ‘흡연권’이란 용어는 흡연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관계없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혐연권’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며 이들이 충돌하는 경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흡연권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따라 보장받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됐지만, 혐연권은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두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는 비흡연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흡연자는 비흡연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제한해야 할까? 학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는 없을까?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흡연구역의 위치이다. 우리 학교 캠퍼스 내에 흡연구역을 살펴보면 모두 건물 출입구 쪽에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다. 비흡연자는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 간접흡연을 해야만 하고 흡연자는 정해진 구역에서 폼에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강의실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자들은 연속 강의일 떠나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야외 흡연장까지 나가서 흡연한다. 담배 냄새가 완벽하게 빠지는 시간은 평균 3~4시간 정도고, 향수나 방향제가 담배 냄새와 섞였을 때는 더욱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결국 흡연구역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닌 현 시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흡연구역은 흡연자만을 위한 대책이 아닌 비흡연자를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 학교 도서관 앞에도 흡연 부스가 있으나 내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개선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태도와 의식이 개선이다. 흡연구역 내에서 침을 뱉거나 꺾은 담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삼가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 구역 안에서만 흡연해야 한다. 매너를 지키고 최선의 배려를 다하는 흡연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이상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또한 흡연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의식 개선이 필수다. 앞에서 말했듯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앞선 권리가기 때문이다. 서로서로 이해하고 최선의 배려를 다할 때 더욱 쾌적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전주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봉사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섬겨야 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하늘과 바다와 산을 향해 절을 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상을 만들어 복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을 새겨서는 신이라고 섬긴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를 많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 이방인들은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친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이 사람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자력구원론'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유한한 사람과는 달리 그 신은 무한하여야 한다. 무한하다는 것은 '초월'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은 어느 한 종족에 귀속되거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우주만물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이나 사람보다 작거나 그 크기 정도이신 분이시면 그분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이 우주만물을 고칠 수도 없다. '하늘에 계신', 그 절대적인 분,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과정에서 자신을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아버지로 알려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부활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만물로부터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지만 우리를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그 분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잠잠히 바라며, 기쁨으로 부활절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전주대학교이길 소망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 6:9).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3년 매일 아침, 선교봉사처에서는 전주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을 비롯해 사회봉사센터·선교지원실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등 단대부터, 교육혁신본부나 선교봉사처, 교무처 같은 본부 및 도서관·박물관 등의 부속기관까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 제목은 매달 1회 각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오늘은 전주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주대학교를 위한 기도
1. 전주대학교에 세우신 총장님 및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주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서로 연합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글로벌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국제 사업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성원들의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 마음과 뜻이 모아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더욱더

비상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3. 전주대학교가 지역공동체와 더욱 연합하고 협력하여 이 전라북도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며 전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전북지역에 그리스도의 새 바람이 불기를 소망한다.
| 선교지원실오여찬(ssd5206@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에벤에셀 하나님(Yahweh of Ebenezer)!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케 하시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59년 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전주대학교가 지금처럼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나라와 지역에 소금과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모두가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인재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기범 교수
(사범대학장·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생각이 인생이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23:7) 우리의 삶은 생각이 그린 궤적이다. 생각은 영혼의 활동이다. 생각으로 대표되는 정신활동 주체는 우리의 영혼이다. 큰 영혼의 소유자가 큰 사유의 사람이고 큰 사유의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영혼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크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질수록 영혼은 온전하게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이는 "말씀"이신 그

분을 가리키는 성경을 주야로 즐기 묵상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영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격적인 생각의 방법으로 들어간다. 생각에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생물처럼 존재한다. 생각 자체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자.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판이하다.

생각의 높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이어져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고려되지 않은 생각은 높이를 상실하게 된다. 고결하지 못하다. 언제나 범사에 주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인정해야 생각이 높아진다.

생각의 깊이: 큰 사유의 사람은 범사에 마지막 근원으로 소급하는 습성을 가진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의 근원적인 본성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구조적 환경적 도구적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넓이: 우리의 생각은 지구촌 전체를 더듬어야 하고, 나아가 우주를 포함한 전 피조물을 사려해야 한다. 지역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온 세상이 의식된 생각과 판단에 이르러야 제대로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넓으면 지구촌 전체가 늘 궁극하다.

생각의 길이: 생각은 어떤 특정한 순간이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시간의 시작도 사려해야 하지만 시간의 시작 이전과 시간의 종말 이후의 영원도 사려해야 한다.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 및 미래와 결부되어 있고 시간 이전과 이후와도 연결되어 있다.

생각에는 경계선이 없다. 모든 시공간을 무시로 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이를 수 있고,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에도 이를 수 있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출입할 수 있고, 시간과 영원이 모두 생각의 대상으로 언제나 허락되어 있다. 생각은 창조자의 큰 선물이다. 생각에는 지식과 논리와 상식과 습관과 감정과 상상이 장애물로 기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들은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방편이다. 하나님과 성경이 생각의 기준이고 원리이고 범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원리와 유사하다. 학문 자체가 생각의 방법이고 생각의 산물이다. 생각은 땅에서의 특정한 전제에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땅에서의 전제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생각의 전제를 제거하는 것이 생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자기부인"의 의미이다. 물건을 포기하고 기호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상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클수록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의 경계선이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 위인을 경험하고 싶다.

한 가지 필요한 일

<쉽게 읽는 성경> ③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신앙에는 분명 이 세상 너머 초월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요소가 있다. 신앙에는 개념과 언어로 다 표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체험이라고 해도 좋고, 신비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신을 만나는 경험은 그래서 개인적, 주관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종교는 또한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종교마다 각 신앙인들의 체험을 아우르고 관통하는 공통의 교백과 교리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보완한다. 종교가 곧 윤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종교 안에 내재된 윤리적 가르침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의 시대정신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이 때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무엇이 더(혹은 가장)중요한가?' 많은 과업과 목표 중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한다. 예수도 그 질문을 묻고 답한 적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 한 지인의 집에 들었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의 제자들도 동행했지만 이 이야기에 부각되는 두 사람은 그 집 주인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이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들을

위해 '준비하는 일'(코이노니아, 여기서 는 주로 식탁을 준비하는 일, 즉 요리를 의미할 것이다)이 많아 마음이 쫓기고 있다. 이 때 동생 마리아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느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에게 불만섞인 요청을 드린다. 동생이 자기를 돕도록 명령해 달라는 것이다. 그 요청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답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42절,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년) 여기서 "몇 가지"가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 속 마르다가 몰두하고 있던 일을 고려한다면, 예수를 위해 차리고 있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라는 충고가 될 수 있다. "몇 가지만" 요리하던지 한 가지 메인 메뉴만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이다. 혹은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음식 준비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일, 이를 테면 청소나 그밖에 최소 열세 명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중 몇 가지만 선택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예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서로 다른 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교할 역본은 『개역개정판』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이다. 여기서 각 역본들의 번역과정이나 의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야겠다. 다만, 현재 대부분 한국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이 『성경개역』 (1938)의 직계 후손이고, 그것은 1911년에 나온 『성경전서』를 기반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자. 그 외 역본들은 기존 역본들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 독자

적으로 새로 번역한 것들이다. 『성경전서』 (1911): 주씨셔 갓답야 아 글 오 사 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만흔일노 념려호 고 근심호 나 그러나 부족호 거시 호나이 잇도다 마리아는 이 선히 직분을 택 호였스니 빼앗지못 호리라 호시더라 『성경개역』 (1938): 주씨셔 대답하야 갈아샤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만흔일노 념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 한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도흔 편을 택하였스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성서』 (1977):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표준새번역』 (1993):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새한글성경』 (2021):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개역개정』이 『성경개역』을 그대로 답습했음은 분명하다. 반면, 『성경개역』은 『성경전서』와 다르고, 가장 최신 역본인 『새한글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전서』와 일치한다. 나머지 두 역본(『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부족한'을 '필요한'으로 바꾸었다. 이 변화는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둘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 경우다. 『성경개역』 = 『개역

개정』과 나머지 역본들간의 차이는 원문의 차이에 기인한다. 신약성서의 경우 원본은 소실되어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천 여개의 필사본들이다. 이 사본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그런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이다. 『성경개역』를 펴낸 개역자들이 사용한 그리스어 원문에는 '부족한 것이 몇 가지이거나'가 나오고, 『성경전서』와 다른 역본의 번역자들이 본 원문에는 그 어구가 없다. 그럼 둘 중 어느 것이 원문에 가까울까? 여러 가지 근거에서 더 많은 학자들이 후자일 거라고 본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성경전서』 = 『새한글성경』의 '한 가지가 부족하다'와 『공동번역성서』 = 『표준새번역』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전자를 택하면 마르다가 해 온 '많은 일'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예수께서는 분명 마리아의 선택, 즉 예수의 발치에 앉아 배움에만 몰두한 것의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도 '많은 일' 대신, 혹은 '많은 일' 중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권면해 주실 것 같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 가르침은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거라는 말도, 각자 맡은 한 가지만 하면 분업과 협업을 통해 공동체의 과업이 달성될 거라는 말도 아닌 것 같다. 예수의 말씀은 성공과 실패, 잘함과 잘못함의 기준 자체를 옮기라는 도전일 수 있다. 신 앞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가장 자기다운 한 가지를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기자칼럼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의 시대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선생님도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목사님도 스킨도, 편의점 가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 놨거든? 너 다 가져’

영화 ‘극한직업’에서 인용한 대사이다. 놀랍게도 4년 전 영화 속 대사가 현실이 됐다.

지난 3월 6일, 중학교 3학년인 A(14) 학생이 인터넷에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학생은 호기심에 필로폰 0.05g을 사서 자기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4월 21일,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A가 구매했던 필로폰 0.05g을 남학생들과 함께 투약했다. 어떻게 중학생에 불과한 이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무려 3,286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했으며, 서울 어느 지역이든 당일 택배 또는 ‘던지기’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마약을 배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류를 숨겨놓고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마약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접근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10대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고등학생 세 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학생들은 “퀄리티는 긴말 필요 없이 최고로 보장한다”, “장사도 하면서 나도 마약을 쓰기 위해 도매를 구입했다”, “내가 판매하는 마약은 항상 좋은 것만 고집한다” 등의 문구로 마약을 홍보했다. 학생들이 보유한 마약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으로, 1만 2,000여 명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

무분별한 마약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21일, 상가·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서울

소재 상가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했다. ‘던지기’ 수법과 가상화폐를 사용해 거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대마 17kg(5만 6,000여 명 투약 가능, 약 20억 원)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4월 3일, 강남 대치동 학원 일대에 ‘마약 음료’가 유포된 사건이 있었다. 대치동 학원가의 특성을 악용하여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는 문구를 붙여 학생들을 유혹한 것이다.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성인 1명이 투약하는 양(0.03g)보다 3배가 넘는 양의 마약 성분이 이 음료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제조한 장소로 지목된 곳은 강원도 원주의 평범한 가정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단지외와 공원 등을 끼고 있는 평범한 이웃집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가 제조된 것이다.

모든 범행은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 일어났다. 현실에서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처럼 마약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청나라는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강대국이었지만, 인구의 1/4이 아편에 중독되어 국력이 쇠퇴하고 망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은 여전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양이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을 망치는 수준이 아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 서방 선진국, 중국과 같이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자칼럼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숏폼 중독의 위험성



조하원 기자
(hawon2004@jj.ac.kr)

도파민이란 강렬한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중 하나로 즐거움, 동기부여, 보상 추구하고 관련되어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독서할 때, 목표를 달성할 때와 같이 거창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도파민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다른 행위들에 비해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화두가 되는 숏폼(Short Form)이 있다. 숏폼은 틱톡,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숏츠와 같은 SNS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기 콘텐츠이다. 이 숏폼 영상의 길이는 1분 내외로 몹시나 짧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가볍게 즐길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겨냥한 콘텐츠이다. 또한 영상의 길이가 짧다고 내용이 빈약한 것은 또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영상의 요점이 간략하고 명료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즉각적인 정보 전달에 중독되어, 조금이라도 긴 영상을 보거나 활자 매체를 통해 긴 텍스트를 읽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숏폼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는 능동적인 결론 찾기보다는 떠먹여 주는 정보 전달만을 원하는 수동적인 뇌로 변해간다. 따라서 여가시간이 여유롭게 남았더라도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과정의 단계보다는 빠른 결론만을 원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앞서 말한 과정들이 반복되어 숏폼에 과의존하게 되면,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팝콘 브레인’은 강한 자극이 넘치는 첨단 디지털 기기의 화면 속 현상에만 반응하는 뇌를 뜻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게 변화하는 진짜 현실에는 무감각해진다. 이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숏폼 중독으로 인한 팝콘 브레인 상태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독서율의 저하이다. 독서는 글을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그 글의 의도나 목적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독서율이 저하된다면 문해력도 함께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문해력 이슈로 논란이 된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사 일’로 착각하는 등의 실

수를 초래할 수 있다. 문해력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숏폼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무수히 생산되고 있다. 숏폼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콘텐츠를 추천한다. 그렇기에 한 번 시청을 시작하면 1시간은 거뜰히 시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우울증, 불안, ADHD 등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숏폼 중독에 빠지게 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숏폼 시청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숏폼은 짧고 굵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이다. 하지만 이를 중독 수준으로 시청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적당한 시청이 가장 중요하니 시청 시간을 정해두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우리가 정크푸드만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듯이 뇌도 마찬가지다. 강한 자극에 지친 뇌도 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럴 땐 결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기뻐하며, 결과를 맞이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아무래도 체격이다.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프라인에서 슬로푸드와 같이 느리지만 건강한 취미를 즐기는 하루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디스플레이로 매개되는 미래 사회



이동욱 교수
(전기전자공학과)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미래에는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에서 디스플레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VR은 사용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며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며, AR은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게임, 교육, 의료 등 실생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교통, 안전, 에너지 등을 최적화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도시이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윈도우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도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결합된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음악 재생, 온도 조절, 집안 가전 제어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로나, 경계조건 없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존재하는, 이른바 'Display of Things' 단어로 표현되는, 디스플레이로 매개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을 기대해 본다.

NEWS 나의 좌우명(座右銘)

저열함에 대응하는 품위



최소담 교수
(영어교육과)

아니, 인생의 좌우명이라니... 이견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할 때나 설정할 법한 질문 아닌가. 아니, 비밀번호 찾기를 대비해서라도, 좌우명이 없기도 하거니와, 매번 바뀔, 그래서 비밀번호를 찾아야 할 무렵이면 기억도 나지 않을, "내 인생의 좌우명은?"과도 같은 질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나의 좌우명"이라는 글을 써야 한다니 억지로라도 좌우명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 문득 떠오른 구절이 있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링턴(Hillary Clinton)의 지원유세 연설에

서 했던 말이다. 이는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Barak Obama)와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가 8년간의 백악관 생활동안 그들을 향하는 여러 의심과 증오 발언으로부터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결과로 내세웠던 모토였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그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품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후에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품위있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결책과 방향성을 설정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격을 낮춰 감정을 표출하며 분노를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 연설을 처음 들었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저열하게 나오는 상대에 즉각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품격있게 행동하기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소한 일에도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고 저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나의 작은 에고(ego)에 기반한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다가도 즉각 감정을 드러낸 것을 후에는 후회하던 나

에게 저 한 마디는 울림이 있는 한마디였다. 얼핏 평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저열한 상대에 대해 품위있게 행동하자는 그 한마디는 "나"라는 존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시적 분노 표출이 아닌,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리는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가 넘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인종, 젠더, 계층, 세대 등에 기반한 갈등과 차별 등 사회의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혐오와 분열은 과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마저 들게도 만든다. 그러나 나 역시 저급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의 저열함 속에 숨겨진 혐오의 본질을 파악하고, 건전한 토론과 성숙한 논의 속에서만이 우리 사회는 느리지만 발전해나갈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없이는 이는 불가능하다. 분열보다는 공감, 혐오보다는 이해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얼마나 나와 다른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는가. 우리는 과연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품격있게 행동하였는가. 저열함에 대한 대응으로 품위를 내세울 때이다.

사 설

관심사에 전문성을 더하기

어느 시대나 대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이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마주하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일상을 주어진 대로 생활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달리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성인(成人)으로 대우를 받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미성년(未成年)이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만큼 삶에 대한 책임이 자유와 비슷한 크기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대 초반은 인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다. 성과와 결과를 향해 한창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다. 무엇이든 도전해볼 수 있고, 실패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생 때는 막연한 어둠 속에서 조금씩 더듬어가며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암중모색(暗中摸索)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누구도 대신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만 노력해보자. 그 실체에 어렵듯하게라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잘하는 분야,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봤다면 그다음은 관심사에 전문성을 더할 차례이다. 학과·학문 간 경계가 분명하고 엄격했던 과거와 달리 요새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규제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각종 교육과정 모듈을 개설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학과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공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거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수퍼스타칼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사 제도이다. 이와 같은 융합형 전공을 이수할 경우 자신의 본 전공 외에 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틀을 조금 더 허물어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설정하여 교과 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 제도가 시행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전문성을 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백진우
편집장 | 박헌빈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올
인터넷신문: news.jj.ac.kr

A place where students' imagination becomes a reality, Jeonju University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Metaverse ICC World Open

A place where students' imagination becomes reality: Jeonju University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Metaverse ICC World Open

Our university has recently opened the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Metaverse ICC World," a new hub for cultural content sharing, as part of the Link 3.0 project, led by Director Kim Sang-jin. ICC, which stands for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leverages the university's infrastructure and strengths to support companies through industry-university-research cooperation and cultivate customized talents in various fields.

The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Metaverse ICC World" was created using the SPOT Virtual (<https://spotvirtual.com/>) 3D metaverse platform. It currently comprises a cultural experience hall, department introduction hall, event hall, metalab practice room, family company introduction hall, and mascot souvenir promotion hall. In particular, the SPOT platform provides a convenient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directly create various virtual spaces and easily upload and manage their creations. Through this platform, students can express their creations in various forms and continue to generate new ideas and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others.

Professor Hwang Yo-ha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ead of the Cultural Contents Convergence Metaverse ICC Center, said, "The Metaverse ICC World of Jeonju University is a special space where students' diverse ideas and imaginations can come to life in the virtual world. Currently, only the basic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in the initial stage, but in the future, we plan to provide various creative support to students through the space and cultivate an active cultural ecosystem by collecting creative work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art, design, video, and music."

Meanwhile, as part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day Baeum Co., Ltd. (CEO Ju Bang-Hyun), Smart Skills (CEO Lee Dong-Ho), and Smart SN (CEO Lim Su-Nam) are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latform and student education.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Metaverse ICC World" can be accessed by anyone through the following address: <http://abit.ly/전주대>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selected for "Jeonbuk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Inno-Polis Campus Support Project."

Our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as the implementing institution for the "2023 Jeonbuk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Inno-Polis Campus Support Project." The project will be conducted for 24 months from April 1, 2023, to March 31, 2025.

The project aims to achieve the vision of "nurturing sustainable global-local startup companies based on technology entrepreneurship." It is planned to develop a startup idea validation platform and carry out technology-linked startup discovery and nurturing programs, focusing on fostering technology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in Jeonbuk Special Zone and promoting startups within the special zone, including research institute-based companies. Key features of the project include the identification and nurturing of local content-based entrepreneur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ideas through collaboration with public technology,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self-specialized startup programs such as "Live Commerce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to develop capabilities for exploring new markets. Upon comple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participants will receive support of up to 3 million KRW in three stages for prototype production through staged mock IR presentations, followed by opportunities for validation through prototype testing and pivoting. Lee Sang-woo, the director of the Inno-Polis Campus project, said, "As a university located in the Jeonbuk Special Zone, we will do our best to link the technology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startups and nurture excellent entrepreneurs continuous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rtup idea validation platform."

The application targets for the Inno-Polis Campus support project are prospective or current entrepreneurs in Jeonbuk region who utilize local content (cultural heritage, local specialties, festivals, etc.) for technology-linked startups. The application period is from May 1 to May 26, 2023, and detailed information and inquiries about the application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Startup Support Team at Inno-Polis Campus (<http://startup.jj.ac.kr>) or by contacting 063-220-2848.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holds Glocal University forum

Jeonju University, led by President Park Jin-bae, held a regional private university forum for fostering glocal universities on April 13th (Thursday) at Best Western Plus Jeonju Hotel.

The theme of the forum was "Collaboration Strategies for Fostering Glocal Universities" Over 100 officials from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participated and shared opinions on network building for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universities and designation as glocal universities.

The forum covered key topics such as changes in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current status of RISE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Enhancement) promotion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talent needs of companies. Jeonju University organized this forum to promote sustainable university operation in response to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forum included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topics such as requests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oriented university innovation, including industry-oriented curriculum and customized talent development.

President Park Jin-bae emphasized,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poses various social issues and directly exacerbates the crisis and risk of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extinction. It is a time for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foster talents needed in the reg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rough the university's efforts." Through this forum, our universit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rapid response to the RISE system and designation as a global university for establishing the position of Jeonju University within the local industry and region.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Nursing Department holds the 13th Nightingale Oath Ceremony

The Department of Nursing held the 13th Nightingale Oath Ceremony on April 7th (Fri) at 2:00 PM at the JJ Art Hall in the Art Center.

The Nightingale Oath Ceremony is a ceremony where third-year nursing students promise to inherit the noble spirit and mission of Nightingale and become holistic caregivers who believe in love and service.

At the oath ceremony on this day, quarantine rules were eased, and parents and relatives also participated. Among the guests in attendance were Han Byeong-soo, Dean of Missionary Service, Cha Jin-a, Dean of Academic Affairs, Won Jong-im, Dean of the College of Medicine, and 67 people who held a candlelight ceremony and took the Nightingale oath.

Department Dean Kim Mi-eun said, "I applaud and praise all of you who are standing at the starting point as prospective nurses. I pray that success and a hopeful future will be with you."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oath ceremony will practice at Daejain Hospital, Maumsarang Hospital, Jesus Hospital, an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y.

Meanwhile, the Department of Nursing has achieved a 100% pass rate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for 9 consecutive years from 2013 to this year, and has been fostering nursing talents who share and serve.

| Article & editor Reporter Son Min-ki (minki70064@jj.ac.k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全州大学中国语中国学系选派赴中、台交换生



为了培养G2时代的人才，全州大学（校长朴珍培）中国语中国学系强化国际交流项目，2023学年向中国深圳大学（广东省深圳市）和台湾中原大学（台湾桃园市）2各选派了3名交换生。

派遣期间从2023年3月开始，学习时间为6个月或一年。这期间不仅要研修中国语和当地大学的正规教学课程，还会通过多样的经验学到当地的文化传统。在姊妹大学修得的学分会被全州大学认可，一学期至多认定16学分。选派的交换生不仅会免当地大学的学费，全州大学还会支援一学期100万韩元的奖学金。

此次选派交换生是因新冠疫情中断三年之后重新开始的，会成为今后搞活国际交流的契机。被选派的林某学生谈到自己的抱负时说：“选派交换生项目能够重新开始进行真是太好了。我会把这次派遣当成在当地学习中国语的同时，通过当地生活积累多种经验的好机会。也想通过此次交换生项目在不断发展变化的中国探索新的出路。”

全州大学中国语中国学系主任金仁植教授表示，虽然最近中韩关系恶化，但是两国从政治和经济关系都处于不可分割的地位。我们系将此次交换生项目的重新开始为契机强化并扩大发展多样的国际交流项目，不仅积极支援学生提高外国语能力，还要支援学生提高实务方面的能力，让学生成为适应G2时代的国际人才。

孜孜不倦追梦人 (2021届文化技术学博士生赵丰怡专访)

中国留学生赵丰怡是全州大学2021届文化技术学在读博士生。入学后，前往中国青藏高原导演拍摄纪录片《藏域来风》。此片获得20项国内外奖项，在中国网络播放量达到50多万次。2021年4月，赵丰怡代表中国导演与全州大学，参加在日本东京线上举办的亚洲青少年电影节（Asia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线上论坛，同中日韩青年导演交流并发言。27日，出席线上颁奖礼并获得最佳技术大奖（best technology award）。在今年举行的第五届鸣凤堂国际青年影像节（MIYVMF）上入选年度杰出官方电影。此次影像节共有122个国家的3533部影片参赛，入选的“年度官方杰出电影”将于2023年4月28日在日本九州角逐金银铜奖项。基于赵丰怡取得的成绩，责任编辑简单采访了他。



1.赵丰怡老师好，韩国有很大大专院校，你能讲讲选择全州大学的理由吗？

最早选择韩国留学，是因为我自己本身就是电影专业，很喜欢韩国的电影和纪录片作品。偶然间了解到全州大学的电影学科与全州国际电影节有很深的合作，学科专业性属于韩国一流的电影学科，所以让我很向往全州大学。再加上我早些年在北京参加亚洲大学生电影节时有一位来自全州大学的韩国学生导演，他的作品实力非常出众，所以我觉得教出这样优秀学生的大学肯定也更优秀，所以在申请时毅然决然的选择了全州大学。

2.你在全州大学学习期间取得了国内外很多奖项，能谈谈你的感想吗？

博士就读期间跟随着我的导师金炳五教授学习了文化产业领域的诸多知识，通过更多的理论武装了我的大脑，从而指导我的实践创作更加富有思想性与创意性。同时全州大学宽松的艺术创作和学习氛围也给了施展拳脚的舞台，我经常在研究室里观看韩国最新的纪录片或电影，遇到感兴趣的影片又会去图书馆搜集电影的相关文献。我也会经常关注学部电影系的官网，里面会有韩国各类电影节的征集信息，带给我很大的帮助。

3.毕业之后有什么打算？

毕业以后我还是想回到中国，在大学任教。韩国的电影工业实力与文化输出在亚洲独树一帜，我希望能够将我在韩国所学习到的韩国形式产业发展的优秀经验带回到中国，讲授给更多中国青年学生，通过自己的绵薄之力使青年学子们可以更加了解彼此的文化 and 艺术。



Cơ hội việc làm cho sinh viên

Hiện nay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ang có chế độ visa mới phát triển hóa khu vực (F-2-R) dành cho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Vì sao lại có chế độ visa phát triển hóa khu vực (F-2-R)? Vì tỷ lệ sinh sản thấp nên dân số ngày một ít đi dẫn tới việc mất cân bằng về dân số và ảnh hưởng đến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về sau này.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loại hình visa cư trú, với visa này các bạn sinh viên đang chuẩn bị tốt nghiệp hoặc đã tốt nghiệp sẽ có việc làm do khu vực địa phương liên kết với các doanh nghiệp hỗ trợ, khi sở hữu visa F-2-R các bạn có thể bảo lãnh gia đình, người thân, vợ chồng,...đặc biệt sau này các bạn có thể đổi sang visa cư trú vĩnh viễn.

Chế độ này đã được bắt đầu từ năm 2022 và các hội chợ triển lãm đã được diễn ra 3 lần, 2 lần ở Kimje và 1 lần ở Buan. Ở những đợt hội chợ triển lãm này đã thu hút được rất nhiều các bạn sinh viên trên toàn quốc. Thông qua đây riêng tỉnh Jeonbuk đã có 158 du học sinh đã xin được việc làm và đổi sang chế độ visa này trong đó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15 sinh viên.

Vào ngày 19 tháng 4 năm 2023 ở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diễn ra buổi giới thiệu các doanh nghiệp đến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và hướng dẫn du học sinh về chế độ visa phát triển hóa khu vực, trình tự đăng ký visa và những ưu tiên về visa này sinh viên chuẩn bị cho buổi hội chợ việc làm diễn ra vào ngày 28/4/2023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buk. Các doanh nghiệp lần này tuyển số lượng tối đa là 242 người trên toàn quốc. Viện trưởng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ói rằng: “Sẽ giới thiệu 20 sinh viên đến cho các doanh nghiệp ở hội chợ việc làm lần này” và bạn Quỳnh Trang sinh viên hiện đang làm tại công ty DaeSung: “Lúc chuẩn bị tốt nghiệp mình đã lo lắng rất nhiều nhưng nhờ chế độ visa F-2-R này mình đã có một con đường lựa chọn mới, mới đầu cũng thấy

hoang mang, giờ thì thấy hài lòng về công việc cũng như sự lựa chọn của bản thân”.

Chế độ visa mới này giúp các bạn du học sinh chuẩn bị tốt nghiệp và đã tốt nghiệp tại Hàn Quốc có thể dễ dàng chuyển đổi sang visa cư trú, giúp cho các bạn có thể ở lại Hàn Quốc để tìm kiếm cơ hội việc làm và phát triển sự nghiệp. Điều này không chỉ giúp các bạn tiết kiệm thời gian và chi phí mà còn giúp cho Hàn Quốc thu hút được những người tài năng, có trình độ và kinh nghiệm làm việc quốc tế, giúp cho nền kinh tế và công nghiệp của Hàn Quốc phát triển mạnh mẽ hơn.



“기억하세요” 민방공 경보 4가지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경계경보

안내 : 1분간 평탄한 사이렌 소리



• **공습경보** : 곧 공격 받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공습경보

안내 : 3분간 물결치듯 사이렌 소리
*5초 상승 3초 하강 반복



• **화생방경보** :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화생방 경보 ····)

안내 : 음성안내

• **경보해제** : 공격이 멈추고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경보해제 ····)

안내 : 음성안내



민방공 경보란 무엇인가?

민방공 경보?

적의 항공기나 포탄,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 발령



나타나는 현상



폭발음,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의
진동 또는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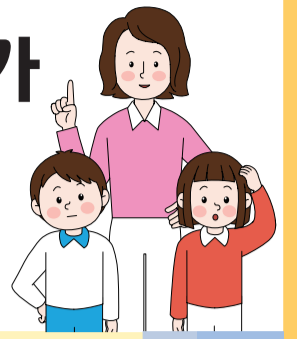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전, 화재가 발생하고
주변이 혼잡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민방공 경보가 올리면 어떡해요



1
학교 생활
중에

준비하고

민방공 경보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 두세요



2
공습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대피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고
몸을 보호하세요



3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

귀 기울이세요

선생님 지시에
따라 행동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은
준비! 대피! 듣기!



학교생활 중에

준비

1
미리 알아두세요.

경계경보·공습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대피

2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

듣기

3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민방공 경보 미리 들어보기

경계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 곧 공격 받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화생방경보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경보해제 공격이 멈추고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수업 시 대피방법



선생님과 지정된
대피장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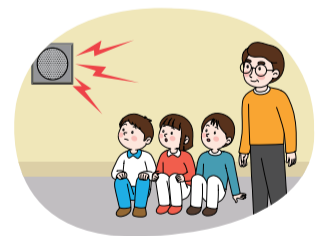


계단을 이용하고
밀거나 뛰지 않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대피장소에 머물며
침착하게 행동하기



교내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 잘 듣기

학교에서 지정한 대피장소 알아두기



학교 지하실



저층 복도



공공용 대피시설



운동장



1층 필로티



강당, 체육관

실외 활동 시 대피방법



운동장 등 실외활동 시
실내 또는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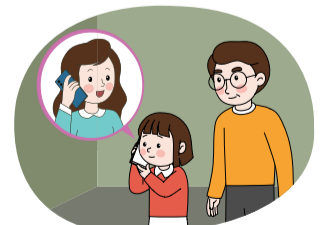


현장학습 등 차를 타고
이동 중에는 가까운 공터,
도로 오른쪽 정차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선생님, 부모님과 소통하기



마음이 불안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말하기



선생님 안내에 따라
부모님께 연락하기